

## 『再造藩邦志』의 作者와 板本 研究

김 광 년\*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再造藩邦志』의 편찬과 판본 |
| II. 申晷의 삶과 교유 | IV. 맺음말              |

### < 국문 초록 >

『再造藩邦志』는 華隱 申晷(1613-1653)이 壬辰倭亂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로서,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이 책과 저자인 신경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저자 신경의 생애를 비롯한 관련 사실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재조변방지』에 대한 文獻學的 고찰을 통해 신경과 『재조변방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신경은 조선 후기의 저명한 문인 象村 申欽의 손자로서 家學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 학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상당한 文才를 지녀 미래가 기대되었으나 丙子胡亂으로 인해 세상에 나아갈 뜻을 접고 은거하다 삶을 마감하였다.

그는 병자호란에서 느낀 울분을 계기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여 정리해 『재조변방지』를 저술하였다. 여기에는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한 데 대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조부인 상촌 신흙의 『征倭志』를 토대로 신경이 각종 문헌에서 관련 사실들을 채록하여 이루어졌던 바, 그 편찬에 家學의 영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ight1979@daum.net

가된다. 『재조변방지』는 활자로 처음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필사를 거쳤고, 18세기에는 인쇄본도 만들어지는 등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주제어】 申晷, 華隱, 再造藩邦志, 華陰寄憤, 申欽, 征倭志, 壬辰倭亂, 家學

## I. 머리말

조선 시대 未曾有의 戰亂이었던 壬辰倭亂(1592-1598)은 조선에 여러 방면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안타깝게도 조선은 倭軍을 격퇴해낼 만한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당시 임금이던 宣祖가 漢陽을 버리고 피난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조선은 결국 明에 구원병을 요청하여 그 도움으로 힘겹게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나라가 아니었으면 조선은 멸망해 버렸을 것이며 명나라는 조선을 부활시켜 준[再造] 은인이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고, 명나라의 은혜, 이른바 '再造之恩'은 명나라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事大的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 문인 華隱 申晷(1613-1653)의 저술인 『再造藩邦志』<sup>1)</sup>는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여 임진왜란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이미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의 정황을 잘 정리한 자료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인용되던 문헌으로서 활자로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諺解 작업도 이루어져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임진왜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 자료로서, 이 책은 현대의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책의 존재, 그리고 저자인 신경에 대해 그리 널리

1) 『재조변방지』는 편찬 이후 어느 시점에서 제목이 '화음기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원 명칭인 '재조변방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논문들에서 이 책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문헌학적 고찰을 비롯한 기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피상적인 인용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재조변방지』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국어학 분야에서 언해본 『지조변방지』를 고찰한 백두현의 논문이 유일한데,<sup>2)</sup> 그는 논문의 전반부에서 신경의 생애를 간단히 언급하고 편찬 시기 등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다만 논문의 목적 자체가 언해본의 국어사적 가치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문헌학적 고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깊이 있는 고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3)</sup>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신경의 생애를 비롯한 관련 사실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재조변방지』에 대한 문헌학적 탐색을 통해 신경과 『재조변방지』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의 편찬을 家學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사색함으로써 이 저술의 의의를 새롭게 규명해볼 것이다.

## II. 申聃의 삶과 교류

### 1. 삶의 궤적

신경의 자는 用晦, 호는 華隱 또는 華陽子, 海東逋民<sup>4)</sup>이며, 이외에 堂號로

2) 『재조변방지』에 주목한 논문이 한 편 더 있으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재조변방지』(『大東野乘』 소재)에 붙인 김용국의 해제(『국역 대동야승』 9책)의 내용을 표절한 혐의가 있어 본 논문의 논의 및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3) 이외에 『재조변방지』에 묘사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鄭鏗生(1998) 참조.

4) 海東逋民이라는 호는 동양문고본 『화음기분』 말미에서 명나라의 조선 구원의 의미에 대해 논한 뒤 “海東逋民 쓰다.”라고 한 데서 보인다.

醒菴<sup>5)</sup>, 睡窩<sup>6)</sup>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화은'은 그의 묘지명을 비롯한 거의 모든 관련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丙子胡亂으로 인해 세상에 나아갈 뜻을 꺾고서 충청도 泰安의 白華山 아래에 은거하면서부터 스스로 지어 사용하였던 호이다.<sup>7)</sup>

신경은 1614년(광해군 5) 4월에 宣祖의 부마였던 樂全堂 申翊聖(1588-1644)의 3남으로 태어났다. 조부는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象村 申鉉(1566-1628)이다. 그는 10대 때 愼獨齋 金集(1574-1656)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는데 이미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홍주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처음 신독재 김집 공이 家學의 연원이 바르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가서 학업을 질의하였다. 얼마 후에 말하기를 “학문은 실천을 귀하게 여기고 명성을 가까이 함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고는 이에 걸치레를 제거하고 명성을 덜어내어 문을 닫아걸고 교제를 그만두었으며 날마다 탐색과 연구를 일삼았으니, 經傳과 子史, 性理書 외에도 卜筮와 星曆, 算數 등과 같은 것들까지도 꿰뚫어 이해하지 않음이 없었고, 새로운 曆法이 시행되면 星官들이 나아가 질의하는 경우가 많았다.<sup>8)</sup>

- 5) 신경은 자신이 지은 암자에 '醒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洪柱世에게 기문을 청탁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신경은 屈原의 '獨醒'의 의미를 취하여 자신의 암자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홍주세는 신경이 암자 이름을 '독상'이라 하지 않고 '상'이라고 했다는 점에 착안, 그의 의도가 혼탁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깨어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게끔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洪柱世, 『靜虛堂集』 卷下, 「醒菴記」, 韓國文集叢刊 續32, 376면. “吾之名菴, 取屈子獨醒之義也. …… 然彼屈子者, 亦豈安於獨醒者哉! 高潔自樹, 不容於世, 發此歎焉耳. 況用晦之名菴, 不曰獨醒, 而曰醒者, 其微意亦自可見, 若用晦其有意與衆同醒者歟!”
- 6) '수와'라는 당호는 洪柱世가 지은 그의 묘지명에 '화은', '성암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홍주세, 『靜虛堂集』 卷下, 「申處士墓誌銘」, 韓國문집총간 속32, 396면. “丁丑亂後, 絕意科第, 挈家避地于泰安縣白華山下, 自號華隱. 又嘗以醒字扁其菴, 睡字扁其窩.”
- 7) 주6 인용문 참조. 이외에도 신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國朝人物志』, 『東藩叢義』 등에서 모두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은 홍주세의 묘지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8) 홍주세, 위의 글. “始聞愼獨齋金公集家學淵源之正, 遂往質業焉. 既而曰: ‘學貴實踐, 近名恥也.’ 於是去邊幅刊聲華, 杜門息交, 日事探討. 經傳子史性理書外, 如卜筮星曆算數之屬, 無不淹貫融會. 新曆之行, 星官多所就質.”

조선시대 문인이라면 학문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성리학 이외에도 術數類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했다고 하는 데서 신경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유연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 태도는 다른 아닌 그의 家學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관련 연구에서 충분히 강조된 바와 같이 개방적 학문 태도는 신흠 이래로 신흠가 학풍의 주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이다.<sup>9)</sup> 신경 역시 이러한 가문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개방적 태도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신경이 특히 조예가 깊었던 분야는 曆法이어서,<sup>10)</sup> 새로운 역법이 시행될 때마다 관리들이 그에게 역법에 대해 질의를 할 정도의 수준이었음이 위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는 18세 때 仁祖가 부친인 定遠君(후에 元宗으로 추존)을 추존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자 다른 선비들과 함께 그 부당함을 아뢰었는데, 이 일로 인해 士流 내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sup>11)</sup> 23세 때인 1635년(인조 13)에는 增廣試에 응시하여 동생 신취와 함께 동반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고,<sup>12)</sup> 아울러 榜中色掌<sup>13)</sup>으로도 선발되었다.

9) 신흠의 학문적 다양성, 개방성에 대해서는 김광년(2014), 20-45면을, 신익성의 개방적 학문 태도에 대해서는 김은정(2005), 49-59면 참조. 뿐만 아니라 신경의 동생인 申最에 대해서도 개방적 학문 태도를 특징으로 지적한 언급이 있다. 李敏求, 『東州集』 권9, 「咸鏡道都事申君墓碣銘」, 한국문집총간 94, 433면. “君夙承家學, 湛潛於理窟. 十九, 作童觀內外篇以明數, 繼而作十一原以辨志, 作禮家附說以考證稽疑. 其說累數萬, 淹通融會, 無所遺恨. 其他九流七略, 以及律曆卜筮岐黃家言, 靡不貫穿, 此見其全也.”

10) 이와 관련하여 신경의 고종사촌이었던 南溪 朴世采(1631-1695)는 자신이 신경으로부터 大統曆에 대해 배웠던 일, 신경 사후 『明史』를 열람하다 역법에 대한 내용이 신경의 말과 그대로 들어맞아 놀라는 한편으로 더이상 그에게 역법을 질의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을 느꼈다는 등의 개인적 일화를 언급한 바 있다. 朴世采, 『南溪先生集』 卷68, 「書明史脩明曆法卷後」, 한국문집총간 140, 376면. “昔在丁亥年間, 余因內兄平山中用晦甫, 聞中朝大統曆是時之異名, 而其法行之已久, 多不驗. ……其後數歲, 用晦遽遭家難, 流離嶺海間以沒, 其事遂不竟, 而其法遂不傳, 余嘗心恨之. 今觀明史本末, 其中一條, 正論曆法始終, 恍然與當時聞於用晦者相符, 特其推步之術, 精緻廣博, 不可涯涘, 是殆難以愚見率易言也. 余益恨其不得以此質于用晦, 略窺其門庭.”

11) 『紀年便攷』 권24(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章陵追崇議記, 昃時年十八, 倡率多士, 引漢申國末漢王謙亢言, 士流時以爲重.”

12) 신취의 합격 순위는 1등 3인으로 합격자 100명 중에서 전체 3위, 신경은 2등 11인으로

신경은 합격자 100명 중에 전체 16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小科에 합격하여 미래가 기대되었으나, 바로 이듬해 丙子胡亂이 발발하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기대와는 다르게 비틀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병자호란 때 부친 申翊聖은 仁祖를 수행하여 南藺山城으로 들어갔고, 신경은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때 강화도의 군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목격하고는 실망한 나머지 家産을 털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진용이 갖추어지기 전에 남한산성이 함락되어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못하였다고 전해진다.<sup>14)</sup> 결국 신경은 조선이 淸나라에 맥없이 굴복해 버리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 대한 뜻을 접어버렸고,<sup>15)</sup> 이에 대한 울분이 계기가 되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가족을 데리고서 태안의 백화산<sup>16)</sup>으로 들어갔다. 이 시기에 동생 신취가 형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하였다.

我所思兮在華山	내가 그리워하는 분 華山에 있어라
欲往從之路阻艱	찾아가 따르고 싶지만 길이 멀고 험하여
陟岡瞻望涕淚漣	산등성이에 올라 바라보니 눈물만 흐르네
遠寄贈我赤瑤帶	멀리 나에게 붉은 구슬 띠 보내주시니
何以報之紫文貝	어떻게 붉은 조개 장식으로 보답할까
帶以束身貝飾繪	허리띠로 몸을 묶고 조개 장식으로 꾸며 보는데
何爲惻憂心煩癡	어찌나 근심스러운지 마음이 괴롭구나 <sup>17)</sup>

漢나라 때의 학자 張衡의 「四愁詩」를 의작해 지은 이 작품에서 신취는 형이 사는 백화산을 생각하며 그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괴로움을 묘사하였다. 제2구는 「사수시」의 구절을 변용한 것인 동시에 조부 신희의

전체 16위였다. 『崇禎八年乙亥十月初四日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참조. 참고로 이때의 증광 사마시에서는 신경, 신취 형제의 절친한 벗이자 고종사촌인 藏六堂 趙歸鏞(1615-1665)이 생원시에 2등 4인으로 합격하기도 하였다.

13) 과거 합격 동기들[同榜]의 친목 모임인 榜會의 임원. 생원, 진사에서 5명씩 총 10명을 선발한다.

14) 『기년편고』 권24, “丙子入江都, 見帥臣不設備, 慷慨號哭, 散家財募義旅兵, 幾集而城陷.”

15) 후술하겠지만 이때의 울분이 이후 『제조변방지』의 편찬에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16) 지금의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산.

17) 申最, 『春沼子集』卷2, 「擬四愁詩」, 한국문집총간 속34, 13면.

약부채 한시 중 「有所思」의 구절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기도 하다.<sup>18)</sup> 그는 형으로부터 붉은 구슬로 장식된 허리띠를 받고서 조개 장식으로 보답하고자 하지만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결국 혼자서 허리띠와 장식을 해 보지만 형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근심만 더해졌다는 것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신경의 은거는 오래 가지 못하였으니, 부친 신익성의 건강 문제로 인해 1642년(인조 20)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부친을 모시면서 생활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644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신경은 장례를 마치고서 자신이 살던 태안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형제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1651년(효종 2)까지 그대로 한양에 머물렀다.<sup>19)</sup>

이 해에 또다시 家禍가 발생하게 되자 신경은 다시 한 번 서울을 떠날 생각을 굳히게 된다. 가화란 신경의 맏형이었던 遐觀堂 申冕(1607-1652)이 金白點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을 가리킨다. 대대로 명문가였던 신경 집안이 역모에 연루된다는 것은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이듬해인 1652년(효종 3)에 가족을 이끌고 멀리 강원도 江陵으로 이주하였다가 불과 1년 만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1653년에 4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가족과 함께 2주 간의 여정 끝에 강릉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선산에 매장되었다. 表姪인 息菴 金錫胄(1634-1684)는 외삼촌이 먼 타향에서 지내다가 불귀의 몸이 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슬픔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묘사하였다.

선생의 부고가 윤 7월에 이르렀으니, 아아, 하늘은 끝내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화를 입히는 것이 여기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면

18) 申欽, 『象村稿』 권4, 「有所思」, 한국문집총간 71, 329면.

19) 이상의 과정은 홍주세가 쓴 묘지명에 정리되어 있다. 홍주세, 위의 글. “壬午, 以東陽公年已踰艾, 而不得以時定省也, 復還京第. 甲申, 東陽公捐館, 服除, 欲歸舊隱, 則昆季咸願同居, 公亦不忍遠離, 乃止.” 또한 研經齋 成海應(1760-1839)이 쓴 신경의 小傳에서도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실었다. 성해응, 『研經齋全集』 卷53, 「逸民傳」, 한국문집총간 275, 114면 참조.

과연 풍토가 재앙이 된 것이며, 화와 근심이 발미가 된 것입니다. 병들어 구제하여 낫게 할 수 없었다면 그 장례는 누가 거두어 치러주며, 병들어 부지하여 봉양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장례는 누가 맡아 이끌겠습니까. 이 조카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또한 어찌 슬피 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 돌아가시자 강릉에서 출발하여 반 개월 만에 선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과부가 되신 부인이 상여를 따르고 어린 자식들은 관을 들고서 嶺海 사이에서 울부짖었으며 길 가던 사람들도 여전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니, 이 조카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또한 어찌 슬피 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20)</sup>

일반적으로 歸鄉의 길은 기쁜 일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신경은 살아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故人이 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死後의 귀향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그의 시신을 상여에 신고 고향으로 향하는 2주 동안 신경의 가족들이 느꼈을 슬픔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유 관계

신경은 문장에도 능통했다는 것이 주변 인물들의 평가인 만큼,<sup>21)</sup> 그는 교유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작품을 통해 그의 교유 관계가 보다 분명히 파악되리라 기대되지만 아쉽게도 현전하는 것이 없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의 교유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써준 글을 통해 짐작해 보아야 한다.

20) 金錫胄, 『息庵先生遺稿』卷18, 「祭內舅華隱先生文」, 한국문집총간 145, 427면. “先生之訃, 乃以閏七月至. 嗚呼, 天終不可恃耶! 天之禍善人者, 其至於此耶! 抑果水土之爲孽耶, 禍患之爲崇耶! 其病也無以救瘡, 則其喪也孰斂合之, 其病也無以扶將, 則其喪也孰護引之? 任念至此, 又烏能不悲且哭也. 先生之喪, 自溟邑行, 半月而至先隴下. 寡妾隨舉, 弱子扶輿, 呼號於嶺海之間, 行路尙爲涕洟, 任念至此, 又烏能不悲且哭也!”

21) 홍주세, 『靜虛堂集』卷下, 「申處士墓誌銘」, 한국문집총간 속32, 396면. “不事翰墨, 而文辭自好, 時或吟詠, 亦有興致. 言論峻爽, 使人聳聽, 間繼諧謔, 若無甚拘檢, 而夷考其行, 舉中繩尺.”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경의 교유는 대부분 그의 동생인 春沼 申最와 겹쳐진다. 특히 신취의 절친한 벗이었던 靜虛堂 洪柱世<sup>22)</sup>와는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신경의 아들 申以華가 자신의 부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로 홍주세를 지목하면서 그에게 부친의 묘지명을 부탁할 정도였다.

故 處士 申公 用晦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되는 해에 그 맏아들 以華가 家狀을 가지고 와 銘을 정하며 말하기를, “선친의 묘에 아직도 誌銘이 없으니 감히 늦추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대개 작은아버지 春沼公의 손으로 사실을 모으기를 기대했으나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친을 알고 그 사실을 능히 기록할 사람은 閣下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하였다. 아, 내 어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만, 공 형제와 교유하며 적이 엿보았으니 글재주가 없다고 사양하지 못하였다.<sup>23)</sup>

뿐만 아니라 홍주세는 태안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위해 送序를 써주기도 하였다. 마침 신경은 태안으로, 신취는 고향으로 각각 떠나게 되었기에 그 작품은 사실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써준 것이었다. 여기에서 홍주세는 신경, 신취 형제에 대한 깊은 우정과 신뢰를 가득 담아내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제주도 식견도 없어 취할 것이 백에 하나도 없이, 질병을 안고 문 닫아 걸고서 오직 졸렬함만을 지키고 있었다. 위로는 군자의 사귀을 얻지 못하고 아래로는 세속의 친구를 취하지 못하여 외롭고 쓸쓸하게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 이번엔 다행히 두 사람을 從遊하게 되어 군자의 논의를 들을 수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다행스럽게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아,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겠는가.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종유하면서 도의를 강론하여 듣지 못했던 바를 더욱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바를 더욱 보게 되어 감발하고 흥기되는 바가 있었다.<sup>24)</sup>

22) 홍주세의 생애와 문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김광년(2019) 참조.

23) 홍주세, 위의 글. “故處士申公用晦歿沒之七年，其胤子以華，以狀請銘曰：‘先君之墓，尙闕誌銘，非敢緩也，蓋有待於季父春沼公手自撫實，今其已矣，不可得矣，則知吾先君而克誌其實者，非閣下而誰？’噫，余惡足當此責？顧以遊公叔季間，有所竊聞者，則不得以不文辭。”

24) 홍주세, 『靜虛堂集』 卷下, 「贈別申用晦季良序」, 한국문집총간 속32, 365면. “若余者無才無

제주도 식견도 없다는 것은 물론 홍주세 자신에 대한 謙辭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홍주세 자신이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없던 와중에 신경 형제를 만났고, 이들을 통해 “군자의 논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술회한 부분이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그것도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만나게 되어 늘 함께 하며 道義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기쁨이 문면에 가득 담겨 있다.

친인척 중에서는 특히 고종사촌들과 교유가 많아서, 朴世采, 趙龜錫 등과 자주 글을 주고받으면서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세채와의 교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역법에 대한 신경의 조예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적이 있거니와, 박세채는 신경 사후에도 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sup>25)</sup> 조귀석의 경우에도 신경을 위해 쓴 시가 문집에서 여러 편 확인된다. 그중에서 신경이 태안으로 이주할 때 써준 送詩를 예시로 들어 둔다.

窮秋搖落送將歸	궁한 가을 낙엽 지는데 장차 떠나는 사람 전송하네
江水滔滔怨別離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이별을 원망한다
北地霜寒鴻有住	북쪽 땅은 서리 내리고 차가워 큰 기러기 기꺼이 살고
南天雲潤鶴纔飛	남쪽 하늘은 구름 드문드문 학이 나부끼듯 나네
田園計活干戈後	전원에서 살아갈 계획은 전쟁 다음이요
湖海風烟寂寞涯	湖西 바닷가 구름과 안개 물가에 적막하네
遙羨華山君作主	아득히 그대가 華山에서 주인됨을 부러워하노니
分留一半尙相依	한쪽 반을 남겨두면 혹시라도 의지가 될 것인가 <sup>26)</sup>

인척 이외의 교유 관계로는 淸陰 金尙憲(1570-1652), 桐溪 鄭蘊(1569-1641)과의 교유가 확인되는 바, 조선의 對中 관계 자료를 정리한 『東藩大義』에 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識，百無可取，而抱疾杜門，惟拙是守，上無以得君子之交，下無以取世俗之朋，蹉跎焉涼涼焉，無與依歸。茲者幸從二子遊，而得聞君子之論，此天所以幸余而得遇二子也。嗚呼，微二子，吾誰與歸？吾將與二子，朝夕從遊，講論道義，益聞所不聞，益見所不見，而有所感發興起矣。”

25) 박세채, 『남당선생집』 권3, 「歷拜申兄用晦季良墓有感」, 한국문집총간 138, 71면. 「褐衣蓬累欲何之? 相對無言只自知. 誰料茲行成永訣, 幽墟春日不勝悲.”

26) 조귀석, 『藏六堂遺集』 卷上, 「送申兄用晦避地之泰安」, 한국문집총간 속33, 395면.

金文正(문정은 김상헌의 시호 - 인용자) 鄭文簡(문간은 정온의 시호 - 인용자) 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영남으로 돌아갔는데, 공(신경을 가리킴 - 인용자)은 길이 먼 것을 꺼리지 않고 종종 從遊하면서 서로 더불어 慷慨하여 눈물을 흘렸다.<sup>27)</sup>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김상헌과 정온은 병자호란 때 斥和派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며, 심지어 정온은 척화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자 자결까지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강경파였다. 앞서 신경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신경 역시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한 것에 대해 큰 분노와 울분을 지녔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일치하는 지점이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충청도에서 경상도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신경은 이 두 사람과 연배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교유하기보다는 한두 세대 뒤의 후배로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Ⅲ. 『再造藩邦志』의 편찬과 판본

#### 1. 편찬 목적과 그 성격 : 再造之恩에서 寄憤으로, 그리고 家學의 계승

『재조번방지』는 史庫에 소장될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이기는 하지만<sup>28)</sup> 어떤 공적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신경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이는 표제의 '재조'라는 표현, 그리고 이 책의 다른 표제인 '화음기분'의 '기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된다. 이중 '재조'가 명나라의 '再造之恩'을 의미

27) 『東藩大義』 권8(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金文正鄭文簡自山城歸于嶺南。公不憚路遠。往往從遊。相與慷慨流涕焉。”

28) 규장각 소장 활자본 『재조번방지』 표지에 “當寧三十年甲戌閏四月。藏于史庫”라고 하여 이 책이 1754년(영조 30)에 사고에 소장되었음을 밝혀 놓고 있다.

함은 비교적 자명한 사실이어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기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조변방지』 본문 내용은 명나라의 원군이 모두 돌아간 뒤 몇 차례 사신 왕래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후에 작자 신경은 자신의 소회를 짤막한 글로 정리하고 다섯 수의 한시를 실어 자신의 감정을 형상화해 놓았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이 평화에 젖어 있다가 일본의 침략 앞에 우왕좌왕하였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명나라가 구제해 주었음을 특별히 언급하였던 바,<sup>29)</sup> 이는 '재조'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선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일,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中原이 여진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일,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게 된 일을 언급하며 이를 매우 격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어린 백성은 장년이 되고 장년은 늙으며 노인은 방 안에서 죽어 머리를 보존하고 산 사람은 우물 파 마시고 밭 갈아 먹게 된 것은 천지가 덮어주고 가려 준 은택 아님이 없다. 그런데도 도리어 스스로 닦고 강화하여 뒷수습을 잘하는 계책으로 삼지 않고, 동으로는 백 세대 동안 잊지 못할 원수와 화친을 맺고, 북으로는 天朝를 공격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중자들에게 제재를 당하게 되었으니, 위로는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한 나라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椴島의 험난함과 錦州의 견고함에 이르러서는, 奴騎가 구름같이 모여 바람같이 달려오는 세력으로도 끝내 감히 날아 건너고 담장에 구멍내지 못한 것이 거의 30여 년이었다. 그러니 우리의 정밀한 포를 사용하고 사나운 군졸을 몰아 하루 아침에 격멸할 수 있었는데 燕京을 보전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sup>30)</sup>

29) 신경, 『재조변방지』 권4, 규장각본. “我朝立國, 幾三百年, 而文恬武嬉, 修攘無方, 朝廷之上, 只以黨同伐異爲急務, 士夫之志, 唯有富貴利達是營, 且復娛精溺酒, 弛廢職業, 了不介意於隣國之耿耿. 及其賊情已露, 則無計弭之, 敵兵已渡, 則莫制遏, 上下遑遑, 束手待亡, 廟堂佯攘聚首涕泣, 徒以檀公之走, 用爲謀國之第一妙策而已. 若非宣祖大王至誠以事天, 神宗皇帝拯溺以存亡, 則海左一隅, 咸齒毒刃而無孑遺, 化爲禽獸, 而左其衽矣.”

30) 같은 곳. “民到于幼者壯而壯者老, 老者死隴內保首領, 生者鑿以飲耕以食, 莫非天地覆燾之澤, 而顧不爲自修自強以圖善後之策, 東和於百世難忘之讎, 北制於射天醜穢之種, 上不能酬答皇恩, 下不能保全一國. 至於椴島之險阨, 錦州之堅固, 則以奴騎雲屯風驟之勢, 終不敢飛渡六垣者, 殆將三十餘年. 而乃能用我精砲, 驅我悍卒, 一朝夷滅, 而燕京爲之不保, 則是誰之咎也?”

위 인용문은 語調 자체도 격렬하거나 일본을 “백 세대 동안 잊지 못할 원수[百世難忘之讎]”, 청나라를 “추악하고 더러운 종자[醜穢之種]”라고 표현한 데에서도 신경의 들끓는 분노가 잘 느껴진다. 아울러 그는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는데 힘을 쏟아 청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조선에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烈士가 나오지 않는 것에 큰 분노를 표현하였다.

신경의 분노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자료를 더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조변방지』는 나중에 제목을 ‘화음기분’으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재조변방지』의 필사본인 일본 東洋文庫 소장 『화음기분』에는 다른 판본에 보이지 않는 後敍<sup>31)</sup>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재조변방’과 ‘화음기분’ 사이에 담겨 있는 작자 신경의 의도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이 책은 華陽 申君 用晦甫가 모은 것이다. 戊子年의 志慶과 壬辰年의 再造는 사건이 각기 다르지만 함께 엮어 기록을 합쳐 놓았는데 기재한 일이 자못 상세하다. 대개 皇朝에서 우리 동방에 은혜를 내린 것이 시종 한결같음을 보이고자 하여, 처음에는 ‘藩邦再造志’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華陽寄憤志’라 고쳤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 다만 부끄러움을 안고 치욕을 참고서 오랑캐의 마당에서 北面을 하였고 심지어 檣島와 錦州의 전투에서 도와주는 군대로서 선봉 역할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힘이 약하고 형세가 기울자 강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침내 오랑캐로 하여금 중국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천하에 황제가 되도록 하였다.<sup>32)</sup>

위 인용문에서 책의 제목을 처음에는 ‘변방재조지’라 하였다가 ‘화양기분지’로 고쳤다 하였는데, ‘변방재조지’란 바로 이 책의 통상적 서명인 ‘재

31) 이 후서는 酉山子의 所作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2) 酉山子, 『화음기분』 권4, 일본 동양문고본, 「寄憤志後敍」. “嗚呼, 是書即華陽申君用晦甫之所輯也. 戊子之志慶, 壬辰之再造, 事件各異, 而竝編合錄, 記載頗詳. 蓋欲示皇朝之眷顧我東, 終始如一, 而始則曰藩邦再造志, 後改以華陽寄憤志, 其意何在? ……顧乃包羞忍辱, 北面於檀喪之庭, 甚至於假錦之役, 未免助之兵而爲之導, 此雖力弱勢詘, 忱於積威, 萬不獲已, 而遂使夷虜兀中國, 而肆然爲帝於天下.”

조번방지'를 가리키고, '화양기분지'는 이후 변경된 서명인 '화음기분'을 가리킨다.<sup>33)</sup> 이 글에서 유산자는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신경 자신의 발언과 위의 유산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재조번방지'에서 '화음기분'으로 제목이 변경된 것은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잊지 말자는 것에 대하여 문명국인 조선·명이 비문명국인 청에 굴복했다는 것을 치욕으로 느끼고 이를 복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조번방'이라는 제목은 '再造之恩'은 담아냈으나 문명국으로서의 분노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寄憤'이라는, 분노를 좀더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단어로 제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자료를 통해, 그 분노에는 청에 굴복한 데 대한 분노와 더불어 나중에는 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은인인 명나라에 칼끝을 돌려야만 했던 역설적인 현실에 대한 분노까지도 함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신경이 직접 쓴 小序를 먼저 살펴 보자. 그 畧文은 아래와 같다.

이 志는 『征倭志』를 근간으로 하여 『懲毖錄』과 『類說』 등의 책을 참고하여 넣었으며, 또 여러 문집 중에서 말 한 마디 글자 한 자라도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덧붙이되 정확하게 하려 애썼고 감히 함부로 자기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지엽적이거나 너저분한 말, 거리에 떠도는 말 같은 것들도 산삭하거나 덜어내지 않은 것은 대개 通俗의인 諺譯에 편하게 한 것이고, 중간 중간에 詩로써 증명하고서 志로 제목을 삼은 것은 또한 역사라 하기에는 혐의가 있어서이다. 보는 사람들은 文辭가 거칠고 졸렬하다고 해서 모으고 편집한 뜻을 폄하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sup>34)</sup>

33) 이 글에서 西山子는 신경의 호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음'이 아닌 '화양'으로 적고, 책의 제목 역시 '화음기분지'가 아니라 '화양기분지'라고 하였는데 '음'을 '양'으로 쓴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34) 신경, 『화음기분』 卷1, 일본 동양문고본. “此志以征倭志爲源，參入懲毖錄類說等書，且采諸集中片言隻字，有可者附之，務其的確，不敢妄附己意。若其枝辭蔓語，街談巷說，不刪不節者，蓋便於通俗諺譯，而間以詩証，以志爲名，又嫌於史也。覽者勿以文辭蕪拙，貶其哀輯之意，幸甚。” 이 내용은 『재조번방지』의 모든 판본에 수록되어 있고, 편찬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재조번방지』의 내용이 임진왜란의 경과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신경의 발언 중 이 책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征倭志』라는 책을 근간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왜지』의 실체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으나,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짚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왜지』는 별책으로 꾸며진 단독 저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조부 신흠이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쓴 다양한 기록들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신흠의 문집 『象村稿』를 일별해 보면, 권38에 임진왜란에 대해 기록한 일련의 志 작품들이 집중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작품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壬辰倭寇構變始末
2. 國被誣始末
3. 本國被兵
4. 諸將士難初陷敗
5. 天朝先後出兵來援

각 작품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과 관련한 특정 주제의 사건들에 대해 그 전말을 기록한 것이 『상촌고』 권38의 내용이다. 이들은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신흠이 당시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자은 것들로, 文藝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備忘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신경은 바로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재조번방지』 책머리에 나열된 다양한 문헌들<sup>35)</sup>의 내용을 선별하여 체계화하였다.

『정왜지』가 '근간'이 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로 『재조번방지』 권1의 내용 일부를 「壬辰倭寇構變始末」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경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생각된다. 『대동야승』에 수록된 『재조번방지』에는 책의 맨 마지막에 실려 있고, 이외의 모든 판본에는 책의 맨 처음에 나온다. 또한 대동야승 수록본에는 “而間以詩証。以志爲名” 두 구절이 누락되어 있다.

35) 『列聖御製』로부터 『耳譚』에 이르기까지 총 32종의 문헌이 인용 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재조번방지』 권1 「引用書目」 참조.

壬辰倭寇構釁始末：

倭奴自羅季爲邊患，至麗未兪猖獗恣肆，無歲不入寇。及我朝建國，慕化來款，實食開市。來使者有國王殿·畠山殿·大內殿·小二殿·左武衛殿·右武衛殿·京極殿·細川殿·山名殿。又有受圖書人·受職人。對馬島主島主之子特送船，島主之姪及受職人，歲遣舩，國家定制接應之禮，俱有長弟。國王殿姓源氏，唐僖宗乾符三年，清和天皇賜皇子貞純姓源，源氏始此。每一起來朝者二十五人，上接見一次，若否則命禮曹設行，以正一品官押宴。畠山殿亦源氏，景泰六年，有源義忠者始遣使來，每一起來朝者十五人，後以十五人太多，只許十人上京。畠山以下謂之巨酋。

再造藩邦志：

大抵倭奴自羅季爲邊患，至麗未猖獗愈甚，無歲不侵。及我朝建國，慕化來款，實食開市。使者之來，名號甚多，有國王殿·畠山殿·大內殿·小二殿·左武衛殿·右武·京極殿·細川殿·山名殿，受圖書人·受職人。對馬島主之子特送船，島主之姪歲遣舩，國家定制接應之禮，俱有長弟。國王殿姓源氏，唐僖宗乾符三年，清和天王賜皇子貞純姓源氏，源氏始此。畠山殿亦源氏，畠以下巨酋也。

각 인용문에서 굵은 글씨로 밑줄을 쳐 표시한 부분이 두 문헌에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의 출입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재조변방지』가 「임진왜구구훈시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여기에 내용을 나름대로 가감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재조변방지』가 신희의 『정왜지』<sup>36)</sup>의 기록 정신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책이며, 이는 곧 신희의 학문, 나아가 신희 가문의 家學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록 정신은 신희가 가학의 한 특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신희 자신이 『정왜지』를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대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선조의 명을 받아 명나라에서 원군으로 온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수습하여 정리하기도 하였

36) 신희이 '정왜지'라는 제목의 책을 별도로 편찬한 것은 아니지만, 편역상 『상촌고』 권38의 임진왜란 관련 '정왜지'라 지칭하였다.

다.<sup>37)</sup> 또한 다양한 필기 산문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역사에 대한 논평 역시 많이 남겼다.<sup>38)</sup>

그의 맏아들인 신익성 역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관련 저작을 상당 수 남겼다. 필기 산문인 『漫錄』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였고, 또다른 필기인 『先君遺事』에서는 부친 신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실들을 모아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光海君 때 廢母 논의와 관련하여 1617-18년 2년 간의 경험을 기록한 『丁戊間事』, 1624년 李适의 난 때 대왕대비 등을 모시고 피난했던 경험을 정리한 『書甲子護駕始末』, 1642년 瀋陽으로 압송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北行始末』<sup>39)</sup> 등 신희의 『정왜지』가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그 전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들이다.<sup>40)</sup>

이외에도 신익성은 가학을 계승하여 특히 邵雍의 象數學에 정통하였고, 이러한 학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皇極經世書』의 논리를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하여 『皇極經世書東史補編通載』라는 저술을 완성하기도 하였다.<sup>41)</sup> 이러한 신익성의 일련의 저술 활동들은 그 역시 부친 신희만큼이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신경은 임진왜란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명나라의 '재조지은'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되었고,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한 데 대한 울분을 『화음기분』을 통해 풀어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다루었으며

37) 신희, 『상촌고』 권39,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한국문집총간 72, 269-292면. 이 기록은 당초 月汀 尹根壽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나, 그 내용이 너무 번다하고 쓸데없는 말이 많다 하여 신희가 다시 명을 받아 1605년(선조 38)에 완성하여 바친 것이다. 편찬의 진후 정황에 대해서는 신희가 직접 말미에 後識를 지어 밝혀 두었다. 같은 글, 291-292면 참조.

38) 신희의 필기 산문에 나타난 역사 논평에 양상에 대해서는 김광년(2014), 88-95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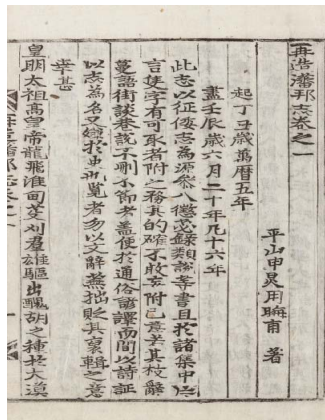
39) 「북행시말」에 대해서는 김은정(2014)을 참조.

40) 이상의 저술들은 모두 미간행 초고본인 『樂全堂稿』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산정을 거치지 않은 신익성의 自編稿인 바, 김은정이 발굴하여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다. 김은정, 앞의 글, 6-11면 참조. 이 책에는 '先集'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나 '선집'이 일반 명사여서 신익성의 문집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보기 어려움은 다음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다. 김광년(2020), 86면.

41) 이 책에 대해서는 김남일(2017) 참조.

조부 신희의 저술이 기본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희와 직접 관련이 되고, 역사에 대한 신희의 관심과 기록 의식을 부친 신익성을 통해 계승했다는 점에서 신익성과 관련이 된다.<sup>42)</sup> 요컨대 신경의 『재조변방지』는 자기 가문의 가학을 계승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희가 가학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 주는 자료로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2. 판본



<그림 1> 榮州本 『再造藩邦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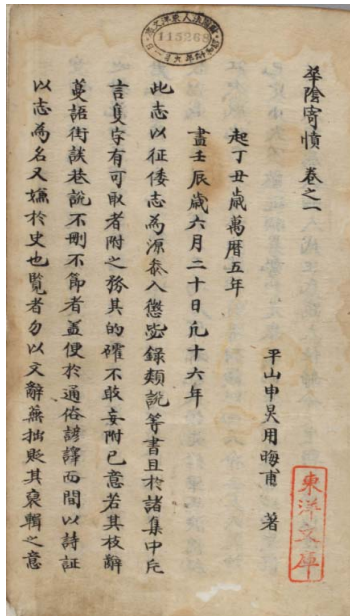
『재조변방지』는 크게 세 가지 계통의 판본이 존재한다.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활자본 『재조변방지』이다. 해당 판본 말미에는 “癸酉仲秋以活字印行于榮川郡”이라는 刊記가 적혀 있어서 이 활자본이 1693년(숙종 19)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sup>43)</sup> ‘영천’은 지금의 경북 영주의 옛 지명

42) 이와 관련하여, 특히 신희가 인물들은 필기 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수습하고 때로는 논평하는 방식을 즐겨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

43) ‘계유년’이 1693년이 아니라 이 책이 사고에 소장되기 직전인 1753년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으나(李浩權의 해제) 확정할 만한 근거가 있지는 않다.

으로서, 이 판본은 통상 영주본이라고 불린다. 영주본은 사고에 소장되었던 규장각 소장본(奎4494)을 비롯하여, 국민대(911.055-신01),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908-3), 충남대 도서관(고서 史地理類-84), 계명대 동산도서관(이) 951.092 신경2)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중 충남대본과 계명대본은 판사향이 각각 필사본과 목판본으로 목록 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형태사항과 주기사항 등을 통해 영주본임을 알 수 있다.<sup>44)</sup> 영주본의 존재는 이 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몇 종의 필사본이 존재한다. 필사본은 본 논문에서 처음 소개하는 일본 동양문고본 『화음기분』(VII-2-200) 이외에, 연세대 소장본 『화음기분』(고서(I) 951.63 화음기 -1~4)이 있다. 두 책 모두 필사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글자 판독에는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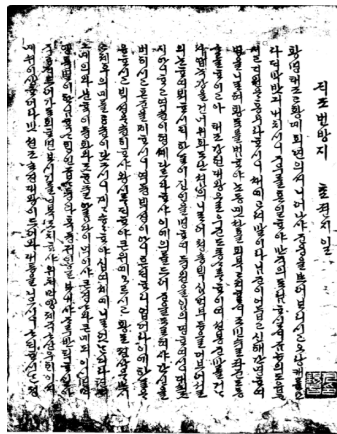


<그림 2> 東洋文庫本 『韓陰寄憤』

44) 물론 이는 잠정적인 가설이며, 향후 실물 확인을 통해 증명이 필요하다.

동양문고본은 다른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 관련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申晷의 小序와 아들 申以華의 後識 외에도, 앞서 인용한 바 있는 西山子의 後敍가 실려 있어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동양문고본에는 본문 말미에 부록으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들 및 순절한 사람들의 小傳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록은 동양문고본에 후서를 쓴 유산자가 편찬한 것으로, 『재조변방지』에 미처 실리지 못한 倡義와 殉節의 사적을 보존하려는 뜻에서 여러 野史 및 稗史 등에서 내용을 뽑아 완성한 것이다.<sup>45)</sup>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倡義' 항목에 申湛 등 26명이, '殉節' 항목에 金鍊光 등 29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사대부 계층뿐만 아니라 병사, 관노 등 역사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도 상당수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림 3> 藏書閣本 『지조변방지』

45) 유산자, 앞의 글. “噫! 喪亂時事蹟之可傳者, 義烈之可記者多, 而或見漏於錄中, 耳目之所不逮, 無怪其間有遺落, 而此則以余得於野史稗乘者, 別爲序次, 亦可爲補遺之一道矣.” 이 글이 작성된 연도가 1773년(유산자의 후서 끝에 “萬曆紀元後四癸巳”라 하여 작성 연도가 명시되어 있음)이므로 부록은 이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연세대 소장본은 원고 용지에 정서되어 있고 行數와 字數가 영주본과 거의 동일하여 영주본을 토대로 필사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중간 잘못 필사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곳에는 다른 종이를 덧대어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난외에 찌를 붙여 수정 사항을 부기해 두기도 하였다. 권1과 권2에는 欄外에 小字로 내용을 요약한 일종의 小題目을 붙여 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책은 표제가 『화음기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활자본 『재조변방지』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본다면 『재조변방지』 간행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언해본 『직조변방지』가 있다. 언해본은 규장각(古4252.4-33-v.1-7)과 장서각(D7B-148)에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 7권 7책과 3권 3책으로 편차가 상이하어 좀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들 언해본은 18세기의 국어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18세기에 언해되어 필사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sup>46)</sup> 『재조변방지』가 언해되어 유통되었다는 것은 이 책의 독자층이 한문 문해력을 지닌 식자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주로 문자 생활을 영위했던 여성 등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외에 개별 판본으로 고서간행회에서 펴낸 『大東野乘』에 수록된 『재조변방지』가 있다. 이 본은 특이하게 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해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과 편차가 다른데, 관련 기록이 없어 편차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재조변방지』가 『화음기분』으로 명칭이 바뀐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책의 판본은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 생산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46) 백두현(1992), 1831~1877면.



영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재조번방지』는 활자로 처음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필사를 거쳤고, 18세기에는 언해본도 유통되었다. 이중 활자본 『재조번방지』가 가장 선본이기는 하나 필사본에도 각각의 특성이 있어 중요한 문헌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조번방지』를 임진왜란을 다룬 다른 저술들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 책의 의의를 좀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家學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신희가의 역사 의식과 역사 저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參考 文獻〉

- 金錫胄, 『息菴遺稿』, 韓國文集叢刊, 145.
- 朴世采, 『南溪集』, 韓國文集叢刊, 138-142.
- 成海應, 『研經齋集』, 韓國文集叢刊, 273-279.
- 申 晔, 『再造藩邦志』(『華陰寄憤』), 규장각 소장본 ;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본 ; 장서각 소장본 ; 연세대 소장본.
- 申 最, 『春沼子集』, 韓國文集叢刊, 續34.
- 申 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71-72.
- 申翊全, 『東江遺集』, 韓國文集叢刊, 105.
- 趙龜錫, 『藏六堂遺集』, 韓國文集叢刊, 續33.
- 洪柱世, 『靜虛堂集』, 韓國文集叢刊, 續32.
- 김광년(2014), 「象村 申欽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년(2019), 「靜虛堂 洪柱世의 文學 初探」, 『고전과 해석』 제24집, 고전문학한문학회  
연구학회, 187~212면.
- 김광년(2020), 「신익성의 금강산 유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유기의 문체적 다변화」, 『한  
국한문학회연구』 제77집, 한국한문학회, 85~111면.
- 김남일(2017), 「『康節先生皇極經世書東史補編通載』의 편찬 배경과 황극경세 紀年 체  
계의 이해」, 『한국사학사학보』 제35호, 한국사학사학회, 55~106면.
- 김용국(1971), 「『재조변방지』 해제」, 『국역 대동야승』 제9책, 민족문화추진회.
- 김은정(2005), 「樂全堂 申翊聖 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14), 「신익성의 심양 체험 기록 『북정록』」, 『동양학』 제56집, 단국대학교 동  
양학연구원, 197~217면.
- 백두현(1992), 「『조변방지(再造藩邦志)의 書誌國語學的 研究』, 『성곡논총』 제23호,  
성곡언론문화재단, 1831~1877면.
- 鄭樑生(1998), 「『再造藩邦志』所見之豐臣秀吉」, 『경북사학』 제21집, 경북사학회,  
723~742면.

## Abstract

### *A Study on the Authors and Prints of Jaejobonbangji*

Kim, Kwang-nyeon\*

*Jaejobonbangji*(再造藩邦志) is a book written by Hwaeun Shin Gyeong(1613-1653), who systematically compiled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Imjin War. This book was widely rea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of the Imjin War. In this article, I tried to introduce the life of Shin Gyeong,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im and *Jaejobonbangji* through a philological review of it.

Shin Gyeong was the grandson of Shin Heum, a renowned wri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who was influenced by family studies and had an open academic tendency. He had great talent and was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but he gave up his will to move on to the world and lived in seclusion.

He collected facts related to the Imjin War, and wrote *Jaejobonbangji*, in the wake of the anger he felt during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t contains the consciousness of the grace of the Ming Dynasty to saved the country, as well as the anger over Joseon's surrender to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this book is based on *Jeongmaeji*, his grandfather Shin heum's work, so I think there was a family studies influence here.

*Jaejobonbangji* has gone through a number of penmanship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in type, and in the 18th century, it was widely distributed, with Korean translates also being made.

**【Key words】** Shin Gyeong(申昞), Hwaeun(華隱), *Jaejobonbangji*(再造藩邦志), *Hwaeungibur*(華陰寄憤), Shin Heum(申欽), *Jeongmaeji*(征倭志), Imjin War (壬辰倭亂,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amily studies

투고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  
light1979@daum.net

